www.kjcdh.org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Original Article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구강관리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 제도 개선 및 전담 인력 배치 필요성

정서영[1], 문소정[2*]

[1]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치위생학과, [2]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Dental Hygienists' Perceptions of Oral Care for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and Dedicated Personnel

Received: December 23, 2025
Revised: February 03, 2026
Accepted: February 11, 2026

Seo-Young Jeong[1], So-Jung Mun[2*]

[1]Department of Dental Hygien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Wonju, 26493, Korea

[2]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ollege of Health Sciences, Yonsei University, Wonju, 26493, Korea

*Corresponding Author: 문소정, (26493)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연세대길 1,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치위생학과, Tel: (033) 760-5560, Fax: (033) 760-2919, E-mail: sojung77@yonsei.ac.kr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investigated dental hygienists' perceptions of oral care for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nd provided foundational data to establish the role of dental hygienists in a super-aged society. **Methods:** An online survey of practicing dental hygienists with at least 12 months of clinical experience was conducted between January 22 and February 8, 2025. A total of 147 participants were recruited, and data from 136 respondent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es, and chi-square tests were performed using IBM SPSS Statistics 27. **Results:** Dental hygienists perceived the oral health status of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s unfavorable (mean score for the perception that oral health would deteriorate=1.74) and strongly agreed that oral ca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systemic diseases. The most commonly identified essential competency among older adults was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between oral and systemic health, and the most effective strategy for promoting oral care is placing dental hygienists dedicated to oral care at each facility.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perceived necessity of resident dental hygienists, depending on oral care experience, with respondents without oral care experience showing greater recognition of their needs (Fisher's exact test, p=0.044).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dental hygienist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oral care and the need for institutional support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hese results may serve as basic descriptive data for discussions on improving oral care systems. However, the findings should be interpreted with caution due to the cross-sectional design and reliance on self-reported data.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2026;14(1):1-10 https://doi.org/10.12972/kjcdh.2026.14.1.1 pISSN : 2287-9641 eISSN : 2465-7743
Copyright © 2026 by Korean Journal of Clinical Dental Hygie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Key words: Dental hygienists, Health policy, Long-term care facilities, Older adults, Oral care, Perception

색인: 치과위생사, 보건정책, 장기요양기관, 노인, 구강관리, 인식

1. 서론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21.6%가 고령인구로 추계됨에 따라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1), 이 과정에서 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노인요양문제가 주요 사회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2).

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은 대다수 구강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며, 장기요양시설 종사자가 시행한 구강관리는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 연구에서 요양기관 입소자의 61%만이 장기요양시설 종사자로부터 구강관리를 받았다고 나타났다(3).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는 같은 연령대의 지역사회 거주 노인보다 우식경험영구치지수와 총의치필요자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4), 의치 위생 관리가 필요한 상태가 다수였고 식사 후 칫솔질을 시행했음에도 구강위생 상태가 불량한 사례가 보고되었다(5).

구강질환은 심리적 불편감, 신체적 불편감, 사회적 장애와 관련이 있으며(6), 노인의 열악한 구강환경은 공중보건의 주요 문제로서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는 흡인성 폐렴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8). 장기요양시설 입소자의 연간 폐렴 발생률은 1,000명당 99~912명(중앙값 365명)으로, 이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75세 미만 12명, 75세 이상 34명)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9).

이러한 차이는 주로 구강 내 세균 증식과 관련이 있다. 치주질환, 저작 및 연하 기능 저하는 세균의 흡인을 통해 폐 감염 위험을 높이며, 실제로 전문적인 구강관리를 받은 환자는 흡인성 폐렴 재발 위험이 약 50% 감소하였다(10).

또한 치아우식증과 치아 결손이 많은 그룹에서 폐렴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95% CI 1.218),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구강관리를 시행한 경우에는 폐렴 발생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95% CI 0.920)(11).

후향적 연구에서 구강관리를 받지 않은 입소자의 폐렴 관련 사망 위험이 구강관리 집단보다 약 3배 높았으며, 여러 체계적 검토와 메타분석은 전반적으로 전문적, 주기적 구강관리가 요양시설 입소자의 폐렴 발생률 및 관련 사망을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12-14). 또한 요양기관 입소 노인에게 구강관리를 시행한 결과 흡인성 폐렴 발생 균주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고(15), 치과위생사가 요양기관 입소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및 구강건강관리교육을 시행한 결과 입소자의 치면세균막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16). 이러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구강관리와 구강건강관리 교육이 요양기관에 입소한 노인의 폐렴 발생률을 낮추고 구강건강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1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방문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에는 간호사(2년 이상의 간호업무 경력 보유자), 간호조무사(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치과위생사가 포함된다(1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방문간호)에 의거하여 구강관리는 "장기요양원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방문간호 내 구강관리 서비스가 급여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19). 그러나 실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제도 시행 이후 전문 인력(치과위생사, 치과의사)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방문간호를 통한 구강위생 서비스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2020년까지 관련 급여의 청구 건수는 0건으로 보고된 바 있다(20).

치과위생사의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구강관리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한 선행연구는 다수 보고되었다(15, 16). 그러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관리는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구강위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과의사의 지시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인해 구강관리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

다(21-23). 기존 연구는 제도적 필요성이나 임상적 효과에 대한 논의에 주로 초점을 두었으며(24),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구강관리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을 경험 유무에 따라 비교 및 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장기요양기관에 상주하는 치과위생사는 2023년 기준으로 단 7명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평가에 구강관리가 신설되어 수급자의 구강청결과 구강건강을 위한 노력 여부를 평가 점수에 반영하게 된 바(25),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의 구강관리를 시행하기 위하여 구강관리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치과 진료 보장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치과위생사와 장기요양기관 상주 직원 간의 다학제적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26, 27). 이러한 제도 변화는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구강관리를 담당하는 치과위생사의 인식과 역할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구강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구강관리 경험 유무에 따른 전문적 구강관리 제공 필요성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 차이를 파악하여,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 정립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치과위생사 면허를 소지하고 치과 의료기관 근무 경력 12개월 이상인 현직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G*Power 3.1 program (Heinrich-Heine-Universität Düsseldorf, Düsseldorf, Germany)을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Chi-square test를 기준으로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를 설정하였다. 이때 대립가설은 두 범주 간 분산의 비율 차이로 정의하였으며, G*Power에서 제시하는 분산 비율 입력 방식(Ratio var1/var0)에 따라 두 범주 간 비율의 차이를 1.5로 가정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최소 필요 표본 수는 134명으로 산출되었다(28). 이에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최종 연구대상자 수는 147명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구글 설문지를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7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설문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13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탈락자 11명 중 6명(4.1%)은 치과위생사이지만 치과 병·의원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5명(3.5%)은 치과 병·의원에서의 근무 경력이 1년 미만으로 나타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구글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문항, 장기요양기관 구강건강관리 실태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항 구성 과정으로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보건의료 정책 자료 및 노인 구강건강 관리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여 주요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진 회의를 거쳐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29, 30).

본 연구의 장기요양기관 구강건강관리 실태 관련 13개 문항과 구강관리 인력 실태 3개 문항 중, 입소자의 구강보건교육 주기적 이수 여부, 정기적인 치과 구강검진 및 치료 여부, 구강관리용품 사용 여부는 Likert 3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구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관한 문항은 단일응답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입소자 구강관리 수행에 필요한 준비사항에 관한 문항은 복수응답 척도를 사용하였다. 그 외의 문항은 모두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예비조사는 문항 구성이 완료된 설문도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응답자 수는 '응답자:항목' 비율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10으로 산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 13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31). 예비조사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문항을 수정하지 않았다.

https://doi.org/10.12972/kjcdh.2026.14.1.1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7.0 프로그램 (IBM Corp.,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Chi-square test를 통해 정리하였다. 연구대상자가 인식하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의 중요성과 실천 여부, 노인 구강관리를 위한 치과위생사의 역량에 대한 인식, 구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대한 인식, 입소 노인의 구강관리 관련 인식 및 요구에 대한 내용을 빈도 분석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인력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을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빈도 분석하였다. 치과위생사의 구강관리 경험 유무에 따라 법제화 필요성, 상주 필요성, 구강건강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isher's exact test를 시행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2.4. 연구윤리

연구자는 Google form을 활용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을 통해 설문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자발적인 참여 의사, 응답자의 익명성 보장, 수집된 자료의 학술적 활용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 모집에 앞서 ○○대학교 ○○캠퍼스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 번호는 1041849-202412-BM-245-02이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여자, 연령은 25~30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전문학사가 가장 많았고, 치과 의료기관 근무 경력은 3년 이상 6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136)

Classification		N(%)
Gender	Male	4(2.9)
	Female	132(97.1)
Age	24≥	21(15.4)
	25~30	65(47.8)
	31~35	36(26.5)
	36≤	14(10.3)
Education level	Junior college	80(58.8)
	Bachelor's degree	50(36.8)
	Master's degree	6(4.4)
	Doctorate or higher	0(0)
Work experience in dental clinics	3>	39(28.7)
	3~5	41(30.1)
	6~8	26(19.1)
	9≤	30(22.1)
Experience in oral health care for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Yes	31(22.8)
	No	105(77.2)

3.2. 장기요양기관 구강건강관리 실태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인식

연구대상자의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인식 및 중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 '구강관리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전신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 악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값을 보였다(Table 2).

Table 2. Awareness and practice status regarding oral health of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N=136)

Classification	M±SD
The oral health condition of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ill deteriorate.	1.74±0.67
Oral health is important for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4.65±0.48
Oral care is important for preventing systemic diseases among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4.70±0.55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ill have high interest in oral healthcare.	2.35±1.11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ill receive regular oral health education.	2.13±0.47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ill receive regular dental check-ups and treatments including dental examinations.	2.04±0.54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will use oral care products.	2.04±0.53

M, Mean; SD, standard deviation.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의 구강관리를 위하여 치과위생사의 역량에 대한 인식의 다중응답 분석 결과, '노인의 구강건강과 전신질환의 상호작용 이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노인 구강관리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술기 습득',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Perceptions of competencies required for dental hygienists to manage the oral health of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Statements	N(%)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 between oral health and systemic diseases among elderly individuals	161(29.6)
Acquiring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necessary for oral health care for elderly individuals	114(21.0)
Ability to communicate with elderly residents and caregiver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104(19.1)
Ability to collaborate with various professionals such as nurses, social workers, and care workers	74(13.6)
Understanding the work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64(11.8)
Improvement of emergency response abilities, including CPR	27(5.0)

Multiple responses were allowed (up to three choices). Percentages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number of respondents.

장기요양기관 노인의 구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치과위생사의 전략 인식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전략은 '각 장기요양기관에 구강관리 전담 치과위생사 배치'였으며, 다음으로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치과위생사 구강관리 법적 기준 마련', '장기요양기관에 적용 가능한 구강관리 표준지침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Perceptions of strategies for improving oral care for older adul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N=136)

Statements	N(%)
Placement of dental hygienists dedicated to oral care in each long-term care facility	66(48.5)
Establishment of separate criteria for oral care by dental hygienists for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31(22.8)
Development of standardized guidelines for oral care applicable to long-term care facilities	21(15.4)
Securing appropriate budgets withing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oral care	12(8.8)
Improvement of dental hygienists' knowledge and practical skills through regular training	6(4.4)

3.3. 구강관리 경험 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

법제화 필요성과 구강건강의 중요성은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경험 유무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상주 필요성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5).

Table 5. Perceptions of the necessity of oral care, according to experienc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N=136)

Category		Oral care experience		*p*-value
		Yes N(%)	No N(%)	
Need for legalization	Necessary	29(93.5)	98(93.3)	1.000
	Not necessary	2(6.5)	7(6.7)	
Need for practice	Necessary	24(77.4)	97(92.4)	0.044*
	Not necessary	7(22.6)	8(7.6)	
Importance of oral health	Important	30(96.8)	101(96.2)	1.000
	Not important	1(3.2)	4(3.8)	

*$p<0.05$
p-values were calculated using Fisher's exact test.

4. 고안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구강관리 경험 유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치과위생사 상주 필요성, 구강관리 법제화 필요성, 구강건강 중요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및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 치과위생사는 전반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양호하지 않다고 인식하였으며, 구강관리가 전신질환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높은 인식을 보였다. 특히 구강관리 경험이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보다 장기요양기관 내 치과위생사 상주 필요성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이는 실무 경험이 부족한 집단일수록 제도적 기반 없이는 구강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현장 경험이 적을수록 제도적 지원과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도 전문 인력 부족과 제도 운영의 한계가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20), 이에 따라 현장 외부의 시각에서 제도화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이 일치한다.

실제로 구강관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들은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인력·예산·행정 절차 등 현실적 제약 요인을 함께 인지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제도상 방문간호 항목 내에 구강관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실제 운영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0), 일부 국내 연구에서는 치과위생사 및 돌봄 종사자들이 다학제 협력의 한계, 명확한 구강관리 지침의 부재 등을 실무적 장벽으로 지적하였다(22, 32). 따라서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 인식이 현실적 제약 인식과 연관되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연구대상자 중 노인 구강관리 수행 경험이 있는 치과위생사가 소수 포함되어 결과를 일반화하여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치과위생사가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구강관리를 수행하며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별도의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 항목에 구강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구 및 집행 건수가 매우 적은 것은 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를 보인다(20). 이러한 현상은 전문 인력 부족, 제도 인지도 부족, 행정 절차의 복잡성 등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치과위생사 상주 제도화를 통한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

2024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 항목에 구강관리가 신설되며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 가능성이 커진 만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33). 따라서 구강관리 표준지침의 개발, 치과위생사 대상 교육 및 역량 강화, 장기요양기관 근무 직종과의 다학제적 협력체계 마련이 요구된다(34). 구강관리를 통해 폐렴 예방, 의료비 절감 등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치과위생사가 제안한 전략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구강관리 전담 치과위생사 배치'였으며, '법적 기준 마련'과 '표준지침 개발'또한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평가 항목에서 구강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이해하고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치과위생사 인력 확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치위생학 교육과정은 임상 진료 중심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구성되어 있어, 노인 구강관리 및 다학제 협력 관련 교육 비중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기되었다(35, 36). 따라서 요양시설 기반의 임상실습 기회가 제한되는 경향이 있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의 확대와 개선이 마련되어야 한다(37). 또한 현재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전문치과위생사 교육제도 등을 통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자기보고식 설문 응답에 의존했기 때문에 실제 행동이나 수행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구강관리 경험 유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상주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더 높은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는 점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 경험 수준과 무관하게 보편적인 요구라는 점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구강관리 전담 인력 배치, 제도 실효성 확보, 교육 및 역량 강화, 다학제 협력 구조 구축 등 다각적 방향에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노인의 구강건강 증진과 폐렴 예방,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구강관리 인식을 조사하여 장기요양기관 내 구강관리 제공의 필요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치과위생사들은 장기요양기관 입소자의 구강건강 상태를 전반적으로 불량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구강관리가 전신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높은 공감을 보였다. 또한 구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장기요양기관별 전담 치과위생사 배치를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구강관리 수행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상주 치과위생사의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한 점은, 실무 경험이 부족할수록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제도적 기반 강화가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향후 구강관리 표준지침 마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다학제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온라인 자가보고식 설문에 기반하여 실제 수행 수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장기요양기관 구강관리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낮아 경험 집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제한이 있다. 향후 실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구강관리 수행 과정과 제도 적용 시 나타나는 현실적 요인을 보다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구강관리 제공이 노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Author contributions

Conceptualization: SY Jeong and SJ Mun. Formal analysis: SY Jeong. Investigation: SY Jeong. Methodology: SJ Mun. Supervision: SJ Mun. Writing—original draft: SY Jeong. Writing—review & editing: SY Jeong and SJ Mun.

References

1. Statistics Korea. The elderly population in Korea. [online] https://kosis.kr/search/search.do?query=%EB%85%B8%EC%9D%B8%EC%9D%B8%EA%B5%AC. 2025.09.16.
2. Park SY, Cho NI, Ju HJ, Lee SH, Oh HW, Lee HS. Oral health care behavior for the elderly in some long-term care facilities. J Korean Acad Oral Health 2013;37(4):200-207. 10.11149/jkaoh.2013.37.4.200.
3. Coleman P, Watson NM. Oral care provided by certified nursing assistants in nursing homes. J Am Geriatr Soc 2006;54(1):138-143. 10.1111/j.1532-5415.2005.00565.x.
4. Yang SB, Moon HS, Han DH, Lee HY, Jung MK. The oral health status and treatment needs of the elderly patients in geriatric hospitals. J Korean Acad Prosthodont 2008;46(5):455-469. 10.4047/jkap.2008.46.5.455.
5. Han DH, Kim NH, Ko SM, Kwak JM, So JS, Lee SG, et al. Oral health status and implications for the elderly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Korean Dental Association 2015;53(10):688-695.
6. Masood M, Newton T, Bakri NN, Khalid T, Masood Y.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and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elderly people in United Kingdom. J Dent 2017;56:78-83. 10.1016/j.jdent.2016.11.002.
7. Petersen PE, Yamamoto T. Improving the oral health of older people: the approach of the WHO Global Oral Health Programme. Community Dent Oral Epidemiol 2005;33(2):81-92. 10.1111/j.1600-0528.2004.00219.x.
8. Kanzigg LA, Hunt L. Oral health and hospital-acquired pneumonia in elderly patient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 Dent Hyg 2016;90(Suppl 1):15-21.
9. Muder RR. Pneumonia in residents of long-term care facilities: epidemiology, etiology, management, and prevention. Am J Med 1998;105(4):319-330. 10.1016/s0002-9343(98)00262-9.
10. Miyagami T, Nishizaki Y, Imada R, Yamaguchi K, Nojima M, Kataoka K, et al. Dental care to reduce aspiration pneumonia recurrence: a prospective cohort study. Int Dent J 2024;74(4):816-822. 10.1016/j.identj.2023.11.010.
11. Son MK, Jo SY, Lee JS, Lee DH. Association between oral health and incidence of pneumonia: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from Korea. Sci Rep 2020;10(1):9576. 10.1038/s41598-020-66312-2
12. van der Maarel‐Wierink CD, Vanobbergen JNO, Bronkhorst EM, Schols JMGA, de Baat C. Oral health care and aspiration pneumonia in frail older people: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Gerodontology 2013;30(1):3-9. 10.1111/j.1741-2358.2012.00637.x.
13. Sjögren P, Nilsson E, Forsell M, Johansson O, Hoogstraate J. A systematic review of the preventive effect of oral hygiene on pneumonia and respiratory tract infection in elderly people in hospitals and nursing homes: effect estimates and methodological quality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J Am Geriatr Soc 2008;56(11):2124-2130. 10.1111/j.1532-5415.2008.01926.x.
14. Kaneoka A, Pisegna JM, Miloro KV, Lo M, Saito H, Riquelme LF, et al. Prevention of healthcare-associated pneumonia with oral care in individuals without mechanical ventila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Infect Control Hosp Epidemiol 2015;36(8):899-906. 10.1017/ice.2015.77.
15. Adachi M, Ishihara K, Abe S, Okuda K. Professional oral health care by dental hygienists reduced respiratory infections in elderly persons requiring nursing care. Int J Dent Hyg 2007;5(2):69-74. 10.1111/j.1601-5037.2007.00233.x.
16. Seleskog B, Lindqvist L, Wårdh I, Engström A, von Bültzingslöwen I. Theoretical and hands‐on guidance from dental hygienists promotes good oral health in elderly people living in nursing homes, a pilot study. Int J Dent Hyg 2018;16(4):476-483. 10.1111/idh.12343.

17. Liu C, Cao Y, Lin J, Ng L, Needleman I, Walsh T, et al. Oral care measures for preventing nursing home‐acquired pneumonia.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18;9(9):CD012416. 10.1002/14651858.CD012416.pub2.
1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nforcement Decree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Elderly. [online] https://www.law.go.kr/lsInfoP.do?lsId=010526&ancYnChk=0#0000. 2025.09.16.
19.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ct for the Elderly. [online]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10436&ancYnChk=0#0000. 2025.09.16.
20. Lee SH, Bae SM, Shin BM, Lee HJ, Shin SJ.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visiting oral health care services for elders. J Korean Soc Dent Hyg 2020;20(4):457-467. 10.13065/jksdh.20200042.
21. Kim MH, Kim SH, Kim HS, Hwang YS, Kim J.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the legal scope of work of dental hygienists: focusing on dental hygienists and dentists. J Korean Acad Dent Manage 2021;9(1):14-24.
22. Moon SE. A qualitative study on dental hygienists' experience of visiting oral health care intervention activities. J Korean Soc Dent Hyg 2024;24(6):609-620. 10.13065/jksdh.20240609.
23. Oh SH, Nishimura R, Hwang SJ. Searching for ways to improve visiting oral health care services in Korea through comparison with Japanese system in long-term care insurance. J Dent Hyg Sci 2023;23(2):154-168. 10.17135/jdhs.2023.23.2.154.
24. Dahm TS, Bruhn A, LeMaster M. Oral care in the long-term care of older patients: how can the dental hygienist meet the need? J Dent Hyg 2015;89(4):229-237.
25.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nouncement of the number of dental hygienists resid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online]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09020000&bid=0026&tag=&act=view&list_no=1483893. 2025.09.16.
26. Pombo-Lopes J, Rodrigues I, Costa J, Gomes AC, Fonseca J, Grillo-Evangelista J. Health professionals' perceptions, barriers and knowledge towards oral health care of dependent people in nursing homes: a systematic review. Front Public Health 2025;12:1504542. 10.3389/fpubh.2024.1504542.
27. Weening-Verbree LF, Douma A, van der Schans CP, Huisman-de Waal GJ, Schuller AA, Zuidema SU, et al. Oral health care in older people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n updated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es of implementation strategies. Int J Nurs Stud Adv 2024;8:100289. 10.1016/j.ijnsa.2024.100289.
28. Faul F, Erdfelder E, Lang AG, Buchner A.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 Res Methods 2007;39(2):175-191. 10.3758/bf03193146.
29. Kim HN, Kim KY, Noh HJ, Kim NH. In-depth interview with the center managers for home visit dental hygiene services i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J Korean Soc Dent Hyg 2018;18(4):455-462. 10.13065/jksdh.20180037.
30. Jang JH, Seong MG, Kim YS, Hwang SH, Kim MY, Jeong MO and three others. Dental hygienists' specialized oral care interventions for the elderly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ese interventions: focusing on elderly residents in day care centers. Cheonan:Kore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2023 Dec. 1-65.
31. Boateng GO, Neilands TB, Frongillo EA, Melgar-Quiñonez HR, Young SL. Best practices for developing and validating scales for health,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a primer. Front Public Health 2018;6:149. 10.3389/fpubh.2018.00149.
32. Kim NY, Bae HS.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oral health assessment tool for the elderly in nursing homes. J Dent Hyg Sci 2021;4(1):53-64. 10.22753/JKDHS/2021.4.1.53.

33.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otification on evaluation method of long-term care institutions. [online]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50638&utm_source=chatgpt.com#AJAX. 2025.11.09.
34. Weening-Verbree LF, Schuller AA, Cheung SL, Zuidema SU, Van Der Schans CP, Hobbelen JSM. Barriers and facilitators of oral health care experienced by nursing home staff. Geriatr Nurs 2021;42(4):799-805. 10.1016/j.gerinurse.2021.04.012.
35. Kim YJ, Jang JH, Cho JW.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geriatric dental hygiene curriculum in Korea. J Korean Soc Dent Hyg 2020;20(6):865-874. 10.13065/jksdh.20200080.
36. Park JW, Jang JH. Evaluation of 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 competency for oral health care based on integrated care for older adults in dental hygienists. J Korean Soc Dent Hyg 2024;24(6):597-607. 10.13065/jksdh.20240608.
37. Cho GS, Yoon HS, Jang JH. Demand for dental hygiene specialization training courses for visiting oral health care for older individuals. J Korean Soc Dent Hyg 2022;22(5):425-435. 10.13065/jksdh.20220048.